



세계 양계 산업의 동향.(2)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

서 독

최근에 와서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은 서독으로부터 양계생산물, 양계기술의 수입 그리고 양계 부문의 투자를 끌어 들임으로 서독 양계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는 주요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다.

1977년말 서독의 한 회사는 United Arab Emirates 에서 연간 225만 수의 브로일러와 1,500만개의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완전냉방 시설을 갖춘 가금생산물 센터의 건립을 계약받았고 이 계획에 덧붙여서 종계(P.S)의 공급과 기술적인 지원에 직접 서독인이 참가하는 조건을 얻어내었다. 이와 비슷한 건물 건립이나 기술진의 참여, 종계판매등의 주문을 최근들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수단 등으로 부터 받고 해외진출의 호황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 인력, 종계수출은 지난해(1977년) 처음으로 서독이 주축이 된 유럽 공동체의 브로일러가 중동에 수출

되면서 특히 서독의 부로일러 산업이 안정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체 이 나라의 닭고기 소비량은 1976년 총 560,000Ton이었고 전체 생산량은 304,000Ton으로 276,000Ton의 닭고기를 수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입국 중의 하나였는데 급격히 성장한 양계산업은 1977년 12,900Ton의 수출에 이어서 1978년에 30,000Ton 정도의 수출이 이룩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 나라의 농산물 가격을 전담하는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쿠웨이트, 오만, 시리아 등은 자체의 급격한 양계 생산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1978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배가 되는 약 300,000Ton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공동체의 나라들이 서독 보다도 싼 값으로 닭고기를 생산하여 중동시장에서 경쟁이 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신경은 쓰이고 있으나 고도화된 기술과 훌륭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아랍 여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않는 상황이라고 여유

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1973년부터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브라질의 양계산업은 유럽 여러나라, 북미의 나라들과 양계 생산물의 국제 경쟁에서 좀 더 값이 싸게 공급함으로써 대처해 왔으나 브라질 정부의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정책 때문에 앞으로 양계 산물의 수출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수지 균형은 이 나라의 주요 산업 품목인 커피, 설탕, 대두박의 국제가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양계산업 면에서 볼때 선진 양계산업국으로부터 종계, 사료원료, 기술등의 뒷받침이 없이는 현재 상태의 양계 산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등지에서 500Ton 정도의 닭고기 수입이 있었지만 1973년 총 324,000 Ton의 닭고기 생산의 양계 산업은 1976년 413,000Ton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여서 1976년 중동이나 서 아프리카에 100,000Ton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발전은 선진외국의 우수한 종계, 과학적인 기술의 도입 없이는 불가능하였다는 견지에서 또 지금도 더 많은 양의 수출을 위해서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양계 산업면에서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수입통제 정책은 가끔이나 양계산물에서 품목에 따라서는 약간씩 다르지만 증가세가 125%~155%나 부과되고 이에 덧붙여 수입가격의 100%에 달하는 현금을 정부에 1년간 이자도 없이 예치해야만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비생산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계산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급격

한 양계산업의 성장이 해외진출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국내 소비(국민 1인당 닭고기 3.9 kg, 국내전체 계란소비량 60억개)는 어느때와 별다른 증가가 없었으므로 좀 더 내적 충실을 기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이기도 한다.

페 루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내 육류 소비의 자급자족 정책이 양계생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켰고 그반면에 쇠고기의 수입을 급격히 줄게 하였다. 1970년에 들어와서 양계생산물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의 소비가 충족될때 까지 정부의 완전보장제도가 되어있어 1976년, 1977년에 10%와 15%의 증가수치를 보였고 1976년 국내의 전체 양계산물의 생산량은 닭고기가 130,000Ton에 달하면서 양계 경영자들은 이러한 양계산업의 증가가 국내소비를 충당시킨후 외국수출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멀지않아 닥쳐올 양계산물의 과잉생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닭고기는 주로 이나라의 수도인 리마지역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쇠고기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반면에 지방의 시골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의 과급이 소홀하기 때문에 별다른 닭고기의 소비증가가 없다고 한다. 산란계산업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10~12% 정도 연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산란계 농장에서는 브로일러 생산을 위해서 산란계를 처분하는 비율이 높아서 멀지않아 계란의 공급은 많이 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 이전에 닭고기의 소비가 쇠고기에 뒤진 이유를 이곳의 전문가들

은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브로일러의 사료원료로서 어분을 많이 이용하므로 생선냄새가 나는 닭고기 생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어분을 외국에 수출하고 대두박을 수입하여 사료에 이용하므로써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1976년 한해동안 닭고기 수입은 66,000 Ton이었고 국내에서 생산된 브로일러 초생추의 수수는 3천만수였으며 브로일러 용 병아리 수입은 7천만수를 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계속적인 진흥정책과 더불어 많은 발전의 면모는 가져왔지만 1977년 닭고기와 계란수입은 국내의 소비에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판매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가 심하여 생산감소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중동에서 제일 큰 계란수출국인 중동의 계란보고인 "시리아"가 내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못하게 됨으로서 특히 계란가격은 50%이상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는 양계생산물의 소비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브로일러 사양가들에게 산란계 사양을 겸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 연간 4,5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란계 초생추와 계사 설립을 추진하고 또 1억수의 브로일러 생산을 위한 완중계 농장(G. P. S) 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유럽의 하바드(Hubbard) 회사가 이 나라에 제일 먼저 육종농장 설립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유리브리드 회사의 하이섹스(Hisex) 산란계도 이 양계생산물의 소비왕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삼송가축약품상사

취급종류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2) 축산기구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 일절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세미
- 노계 { 백색
 유색

☎ (39) 9658

